<h1>나 혼자만 레벨업-77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u93fa0c5d50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77화</p>  
<p>B동 전체가 일순간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.</p>  
<p>'방금 분명히 측정 불가라고...'</p>  
<p>'그럼 저 사람이 S급?'</p>  
<p>'말로만 들었지 측정 불가 등급을 실제로 보는 건...'</p>  
<p>꼴깍.</p>  
<p>길드에서 나온 영입담당 직원들은 자신들 방향으로 돌아선 진우를 보며 마른침을 삼켰다.</p>  
<p>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려고 하지 않았다.</p>  
<p>"..."</p>  
<p>"..."</p>  
<p>C급만 돼도 어떻게든 길드로 모셔가기 위해 신경전이 벌어지고, 한마디 말이라도 붙이려고 길게 줄을 선다.</p>  
<p>B급은?</p>  
<p>길드 간부 위치 보장. 길드 지분 분배 등등 저마다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아주 죽기 살기로 달려든다.</p>  
<p>옆에서 보면 전쟁이 따로 없다.</p>  
<p>상급 헌터인 B급이 가진 가치와 영입에 성공했을 때 받을 특혜를 생각하면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었다.</p>  
<p>간혹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되고 싶은 B급들이 설득에 넘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.</p>  
<p>그러나 A급부터는 이야기가 다르다.</p>  
<p>A급은 중소길드가 아니라 대형길드로 가도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.</p>  
<p>정예 공격대 멤버는 당연하고, 정예들의 주 수입원이 상급 던전인 만큼 보상도 어마어마하다.</p>  
<p>어디 그뿐인가?</p>  
<p>정 마음에 맞는 길드가 없다면 본인이 직접 마스터가 되는 방법도 있다.</p>  
<p>중소길드쯤이야 자신이 만들면 되는데 굳이 남의 길드에 들어가려 할까?</p>  
<p>A급은 그런 레벨인 것이다.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방금 막 마력 측정을 마친 저 남자는 S급이라고 한다.</p>  
<p>S급, S급 말이 쉽지 대한민국에는 딱 아홉 명만 존재하는 각성자들이었다.</p>  
<p>'저 남자까지 하면 이제 10명인가?'</p>  
<p>'10번째 S급 헌터...'</p>  
<p>중소길드의 영입 담당자들이 어떻게 비벼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.</p>  
<p>꿀꺽.</p>  
<p>다들 소리 없이 계속해서 침만 삼켜 댈 뿐.</p>  
<p>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다.</p>  
<p>하지만 그때.</p>  
<p>'잠깐...'</p>  
<p>'이거 혹시 기회 아냐?'</p>  
<p>몇몇 소수의 약삭빠른 스카우터들의 머릿속에 기막힌 생각 하나가 번뜩 스치고 지나갔다.</p>  
<p>S급 각성자를 대형길드와 이어 주는 건 어떨까?</p>  
<p>S급은 계약금이 최소 수백억을 능가한다.</p>  
<p>그 돈의 1퍼센트만 인센티브로 먹어도 지금 직장을 때려치우는 데 아무런 여한이 없을 터.</p>  
<p>그러다 운 좋게 저 남자의 눈에 들어 개인 매니저라도 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인생이 피는 거다.</p>  
<p>어떤 S급 헌터의 개인 매니저는 생일 선물로 포르쉐를 선물 받았다고 하던가?</p>  
<p>스카우터라고는 하지만 D급이 대부분인 그들의 입장에서는 군침이 도는 상상이었다.</p>  
<p>'...해 볼까?'</p>  
<p>'나 정도면 어디서 못 먹힐 말빨은 아닌데...'</p>  
<p>'그냥 눈 딱 감고 덤벼 봐?'</p>  
<p>짧은 시간 스카우터들의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오고 갔다.</p>  
<p>실패의 비웃음은 잠시지만, 성공의 달콤함은 평생이다.</p>  
<p>스카우터들이 서로 눈치를 살피며 슬금슬금 앞으로 나서려 하는 그때.</p>  
<p>누구 하나가 입을 열었다.</p>  
<p>"어? 저 사람...?"</p>  
<p>다들 긴장하고 있어서일까?</p>  
<p>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모두 동시에 처음 입을 연 사람이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.</p>  
<p>스카우터들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"헉!"</p>  
<p>B동 안으로 들어서고 있는 세련된 정장의 남자.</p>  
<p>여기 있는 이들 중 그 남자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.</p>  
<p>"최... 최종인?"</p>  
<p>"헌터스의 대표가 왜 여기에?"</p>  
<p>아니나 다를까.</p>  
<p>최종인은 시선을 의식한 듯 가볍게 옷매무새를 한 번 정리하고는 곧장 진우에게로 걸어갔다.</p>  
<p>'연락을 받고 찾아왔다기에는 너무 이른데?'</p>  
<p>'설마 저 남자, 이미 헌터스에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던 건가?'</p>  
<p>'헌터스와 연이 있었던 거야? 최고의 길드는 뭐가 달라도 다르네.'</p>  
<p>그러면 그렇지.</p>  
<p>스카우터들은 당연하다면 당연한 결말을 쉽게 받아들였다.</p>  
<p>말을 걸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.</p>  
<p>추파를 던지다가 최종인과 마주치기라도 했으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?</p>  
<p>'이야...'</p>  
<p>'최종인이 나타나니 그림이 되네.'</p>  
<p>'멋지다.'</p>  
<p>'헌터스의 대표라니... S급 대우는 역시 다르구나.'</p>  
<p>다들 각자의 이유로 조금씩은 아쉬워하면서도, 최고의 길드 대표와 최고 등급을 받은 각성자의 만남을 훈훈한 시선으로 응시했다.</p>  
<p>최종인이 진우 앞에 섰다.</p>  
<p>'다행이다.'</p>  
<p>너무 많은 시선이 몰려 어떻게 해야 하나 잠시 고민하고 있었던 진우는 일시적으로 분산된 시선에 감사하며 최종인을 지나치려 했다.</p>  
<p>'어? 이게 아닌데?'</p>  
<p>최종인이 급히 진우를 불러 세웠다.</p>  
<p>"잠시 저 좀 보시죠."</p>  
<p>진우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.</p>  
<p>'이 남자가 열 번째...'</p>  
<p>진우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최종인의 눈이 빛났다.</p>  
<p>부장에게는 같이 알아보자니 뭐니 둘러댔지만 실은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다.</p>  
<p>'그렇게 큰 소리로 측정 불가니 기기 오류니 떠들어 대는데 내가 못들을 수가 있나?'</p>  
<p>덕분에 이렇게 큰 기회를 얻다니.</p>  
<p>무려 S급이다, S급?</p>  
<p>이 남자를 데려오면 헌터스는 S급을 세 명이나 보유한, 한국은 볼 것도 없고 전 세계 최고의 길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.</p>  
<p>어찌 군침이 돌지 않을까?</p>  
<p>'측정기를 빌릴 필요도 없겠군.'</p>  
<p>눈만 마주쳤는데 상대의 강함을 느낄 수 있었다.</p>  
<p>틀림없는 최상급 헌터.</p>  
<p>사흘 뒤를 기다릴 여유는 없었다.</p>  
<p>흠흠.</p>  
<p>목소리를 가다듬은 최종인이 특유의 상쾌한 미소와 함께 말을 건넸다.</p>  
<p>"저는 헌터스의 대표 최종인이라고 합니다."</p>  
<p>진우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다.</p>  
<p>TV를 틀면 뉴스 같은 데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얼굴이니.</p>  
<p>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왜 협회까지 와서 말을 거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일일이 묻고 있을 만큼 여유가 없었다.</p>  
<p>힐끔.</p>  
<p>진우의 시선이 벽면에 걸린 시계를 향했다.</p>  
<p>'지금이 5시 50분이니까.'</p>  
<p>가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지금도 빠듯했다.</p>  
<p>소개는 됐고 용건이나 빨리 말하라는 얼굴을 하고 있었더니 최종인이 약간은 당황해하며 말을 이었다.</p>  
<p>"아, 다름이 아니고... 방금 각성자 판정을 받으신 걸로 아는데."</p>  
<p>"네."</p>  
<p>"혹시 생각해 둔 길드가 있으십니까?"</p>  
<p>"아니요."</p>  
<p>대답을 듣고 난 최종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.</p>  
<p>'됐어, 된 거야.'</p>  
<p>세계 3대 길드 중 하나 '헌터스'.</p>  
<p>이 얼마나 달콤한 단어인가?</p>  
<p>'넌 내 거다.'</p>  
<p>최종인은 부푼 가슴을 안고 역사에 기록될지도 모르는 한마디를 꺼냈다.</p>  
<p>"그 문제로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?"</p>  
<p>"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"</p>  
<p>진우는 짤막하게 사양하고는 곧바로 협회를 나갔다.</p>  
<p>"..."</p>  
<p>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최종인은 미처 잡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진우를 보냈다.</p>  
<p>협회의 직원들이나 스카우터들도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는 경악했다.</p>  
<p>"설마 최종인 대표가 까인 거야?"</p>  
<p>"뭐지?"</p>  
<p>"암만 봐도 무시당한 거 아닌가?"</p>  
<p>웅성웅성.</p>  
<p>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.</p>  
<p>최종인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옆을 돌아보았다.</p>  
<p>"박 부장님."</p>  
<p>"예?"</p>  
<p>부장이 어색한 얼굴로 대답했다.</p>  
<p>"혹시 방금 제가 제 소개를 빼먹었던가요?"</p>  
<p>"그... 글쎄요. 저도 잘."</p>  
<p>물론 부장은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다.</p>  
<p>그런데 지금은 곧이곧대로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지 않은가?</p>  
<p>부장이 입을 다물어 버리자, 무안해진 최종인이 검지로 옆머리를 긁적거렸다.</p>  
<p>'내가 너무 거저먹으려고 했나...'</p>  
<p>그래도 실망할 필요는 없었다.</p>  
<p>분명 다른 길드들보다는 훨씬 앞서 있는 상황이니까.</p>  
<p>'S급의 등장을 아는 사람은 나뿐이다.'</p>  
<p>재측정은 3일 후.</p>  
<p>아직 공식 발표까지는 시간이 있었다.</p>  
<p>'어떻게든 다시 한 번 자리를 마련하고 싶은데...'</p>  
<p>좋은 방법이 없을까?</p>  
<p>고민하고 있던 최종인의 시선에 협회 쪽으로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는 누군가가 들어왔다.</p>  
<p>'어, 저 남자는?'</p>  
<p>낯익은 얼굴.</p>  
<p>남자가 유리문을 밀고 들어 왔을 때 최종인이 놀란 듯 입술을 뗐다.</p>  
<p>"백 사장이 어떻게 여길...?"</p>  
<p>백윤호도 최종인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.</p>  
<p>"최 대표?"</p>  
<p>최종인은 빠르게 백윤호의 표정을 읽었다.</p>  
<p>'뭔가를 들켰다는 얼굴...'</p>  
<p>정보원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게 아니다. 그렇다고 보기에는 도착 시간이 맞지 않았다.</p>  
<p>'백호 빌딩에서 헌터 협회까지 거리가 얼만데...'</p>  
<p>그래.</p>  
<p>백윤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다.</p>  
<p>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.</p>  
<p>'방금 그 남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나?'</p>  
<p>아니, 그랬다면 이렇게 순순히 등급 심사에 내보내지 않았을 텐데?</p>  
<p>'나였다면 계약서에 도장부터 찍고 나서 등급 심사를 시켰겠지.'</p>  
<p>그 순간, 최종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지기 시작했다.</p>  
<p>'...설마?'</p>  
<p>백호 길드. 훈련 도중 일어난 사고, 레드 게이트, 의문의 조력자, 그리고 새로이 등장한 S급 각성자까지.</p>  
<p>-백호 쪽에서 밖으로 알리고 싶지 않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거구만.</p>  
<p>-아직 각성자 판정을 받지 않은 신인? 아니면 신분을 드러낼 수 없는 범죄자?</p>  
<p>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.</p>  
<p>...찾았다.</p>  
<p>'그 남자였구나.'</p>  
<p>얼마나 급하게 달려왔는지 숨을 헐떡이는 백윤호.</p>  
<p>최종인은 그런 백윤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'당신은 놓쳤군.'</p>  
<p>나는 당신과 다르니까.</p>  
<p>'기회는 고맙게 받지.'</p>  
<p>최종인은 백윤호에 말 한마디 걸지 않고 유유히 옆을 지나쳐갔다.</p>  
<p>백윤호가 주위를 둘러보았다.</p>  
<p>진우는 안 보였다.</p>  
<p>'너무 늦게 왔나?'</p>  
<p>백윤호는 멀어지는 최종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.</p>  
<p>"후우-"</p>  
<p>하필 여기 이 시간에 헌터스의 마스터가 있었을 줄이야.</p>  
<p>백윤호가 뒷머리를 긁적거리며 중얼거렸다.</p>  
<p>"일이 꼬이는구나."</p>  
<p>\*\*\*</p>  
<p>서울 일신 병원의 환자 면회 가능 시간은 오후 8시까지였다.</p>  
<p>"박경혜 환자분 보호자시죠?"</p>  
<p>"네."</p>  
<p>"면회 가능합니다. 면회 가능 시간은 아시죠?"</p>  
<p>"네, 압니다."</p>  
<p>진우는 어머니가 계신 병실로 걸음을 옮겼다. 서두른 덕분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다.</p>  
<p>덜컹.</p>  
<p>문을 열고 들어선 진우가 잠자는 듯 누워 있는 어머니 옆에 앉았다.</p>  
<p>'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무렇지 않게 눈을 뜨신 것 같은데...'</p>  
<p>깨어날 수 없는 수면.</p>  
<p>게이트가 열리고 나서부터 생겨난 병이었다.</p>  
<p>'이 병원에만 해도 같은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10여 명이 넘는다던가?'</p>  
<p>진우는 살며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.</p>  
<p>"엄마..."</p>  
<p>다행히 마정석을 이용한 생명 유지 장치는 수년에 가까운 긴 잠에서도 어머니의 손이 수척해지는 걸 막아 주었다.</p>  
<p>그러나 마정석은 비싸다.</p>  
<p>한 달 내내 기계를 돌리는 데 드는 마정석 값만 5백을 넘어간다.</p>  
<p>협회의 헌터로 일하며 의료비를 지원받지 않았다면 절대 20대 청년이 감당할 수 없는 병원이었다.</p>  
<p>그렇게 애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어머니의 손을 잡아볼 수 있었다.</p>  
<p>하지만 이제는 다르다.</p>  
<p>그냥 숨이 붙어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머니를 낫게 해 드릴 수 있다.</p>  
<p>생명의 신수.</p>  
<p>시스템이 선물해 준 치료제.</p>  
<p>믿고 말고는 나중의 일이었다. 지금은 만드는 게 우선이었다.</p>  
<p>"내가 구해 줄게."</p>  
<p>실종된 아버지 대신 약한 몸을 이끌고 가정을 책임지셨던 어머니.</p>  
<p>다시 어머니를 보게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.</p>  
<p>'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.'</p>  
<p>어머니 곁을 얼마나 지키고 있었을까?</p>  
<p>한참 후 진우가 일어섰다.</p>  
<p>짧지 않은 면회를 마친 진우는 소리 없이 병실을 걸어 나와 문을 닫았다.</p>  
<p>그렇게 조심스럽게 돌아섰더니, 낯익은 얼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.</p>  
<p>"역시 그날... 이중 던전의 마수들을 제거한 건 당신이었습니까?"</p>  
<p>낮고 굵은 목소리.</p>  
<p>매서운 눈매.</p>  
<p>감시과 과장 우진철이었다.</p>  
<p>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. 대답할 이유도 없고, 대답할 마음도 없었다.</p>  
<p>대신 묻고 싶은 걸 물었다.</p>  
<p>"제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아셨습니까?"</p>  
<p>"헌터님이 가실 만한 곳을 몇 군데 예상해 보았습니다. 병원에 연락해 봤더니 여기 계시다고 알려주더군요."</p>  
<p>어머니의 병원비를 내주고 있던 곳이 협회다.</p>  
<p>'지금은 아니지만.'</p>  
<p>어쩌면 협회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 본 곳이 병원일지도 몰랐다.</p>  
<p>"그날 일을 물어보려고 여기까지 찾아오신 겁니까?"</p>  
<p>"아닙니다."</p>  
<p>"그럼 무슨 일로?"</p>  
<p>"헌터님을 뵙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. 잠깐 같이 가 주시겠습니까?"</p>  
<p>협회의 감시과.</p>  
<p>감시과의 주 업무는 요주의 헌터들을 감시하고 단속하며, 법을 어긴 헌터를 처벌하는 데 있다.</p>  
<p>헌터의 입장에선 그다지 달갑지만은 않은 존재들.</p>  
<p>진우의 시선도 곱지는 않았다.</p>  
<p>"그건 명령입니까?"</p>  
<p>"아닙니다."</p>  
<p>우진철은 선글라스를 벗었다.</p>  
<p>그리고 직각에 가깝게 허리를 숙이며 정중히 말했다.</p>  
<p>"부탁을 드리는 겁니다."</p>  
<p>"..."</p>  
<p>마냥 엄하게만 보이던 우진철이란 남자가 이렇게 저자세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.</p>  
<p>조금 고민해 보던 진우가 누군지 알아나 보자고 판단했다.</p>  
<p>"절 만나고 싶다는 사람이 누구죠?"</p>  
<p>그제야 우진철이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"헌터협회 고건희 회장님."</p>  
<p>우진철의 손바닥이 자신의 뒤쪽 모퉁이 너머를 가리켰다.</p>  
<p>"여기 협회장님이 와 계십니다."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